

“상업화에 물든 예술의 주체성·신뢰 회복 고민”



3일 오후 서울 서울 홍익대학교 흥문관 가람홀에서 열린 '제11회 광주비엔날레 주제 선정을 위한 오픈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말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제공>

광주비엔날레재단 서울서 내년 비엔날레 주제선정 오픈포럼

“2016년 광주비엔날레는 예술에 대한 신뢰 회복과 미래에 대한 상상력을 주요 키워드로 삼을 계획이다.” (마리아 린드 2016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예술의 아름다움과 삶의 조화를 풀어내는 전시가 되면 좋겠다.”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내년 9월 열리는 광주비엔날레 주제와 관련,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광주비엔날레재단은 3일 오후 서울 홍익대학교 가람홀에서 '제11회 광주비엔날레 주제 선정을 위한 오픈포럼'을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행사는 '예술은 무엇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마리아 린드 2016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 고은 시인(단국대학교 석좌교수), 김우창 문학평론가(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의 발표가 이어졌다.

첫번째 강연자로 나선 마리아 린드 총감독은 예술이 도구화되고 상업화되는 시점에서 예술이 지닌 잠재력과 상상력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내년 행사는 '미래에 대한 상상력', '매개체로서의 예술'을 주요 키워드로 하는 전시가 될 것”이라며 “지역성과 국제적 연결성을 강조하는 전시 방법을 모색할 것이며 동시대의 공동체적 이슈들을 끌어내기 위해 많은 지역적 매개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광주와 한국이라는 특수한 지리·문화적 맥락에서 작가 및 큐레이터들과 함께 이 논제가 심화·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고은 시인은 '예술이 가는 길'에 대해 발표했다. 고은 시인은 '먼지 한 톨 불 한 방울'을 주제로 열린 2004년 광주비엔날레에서 주제시(主題詩) '먼지'를 장

■ 마리아 린드 예술총감독

“미래에 대한 상상력이 주요 키워드”

■ 고은 시인

“예술은 무한한 선의 의지와 실천”

■ 김우창 문학평론가

“평화와 조화로운 삶에 기여해야”

작했고 2010 광주비엔날레 '만인보'(10000 Lives)와도 인연이 있다.

파리 테러를 서두로 댄 그는 “21세기 세계 각처에서 술한 비엔날레들이 생기면서 예술들이 장기 지속적으로 생명을 얼마나 담보하는가에 대해 일정한 회의를 지니고 있다”며 “예술은 생존성을 지녀야하며, 이는 심오한 예술적 본능과 사유의 축적을 획득해야한다”고 예술의 본질에 대해 설명했다.

‘예술의 주체성’과 ‘예술의 미래학’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자본과 시장의 탐욕, 권력의 장기 계승, 사회의 비정화(非淨化) 상태에 대한 진실 또는 진리, 무한한 선(善)의 의지와 실천으로 이루어질 미(美)의 신천지야말로 ‘예술의 미래학’이 돼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아름다움은 모든 세속사회를 정화시킬 궁극적인 인류의 행위로 진(眞)의 추구와 선(善)의 실천을 가장 바람직하게 합치시킬 때 그 총화로서의 미(美)에도 달한다”고 덧붙였다.

또 전 세계에서 수많은 비엔날레가 치러지는 가운데 광주비엔날레는 소모적인 일회성 설치미술을 지양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미술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우창 교수는 ‘예술과 화평의 이상’이라는 발표를 통해 내년 행사의 기본 방향인 ‘예술 자체의 의미 확립’에 대해 동의한다고 밝혔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인간의 심성을 순화하고,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에 화평과 평화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화평과 평화를 위한 예술’, ‘예술과 삶의 일체성’, ‘예술의 아름다움과 삶의 조화’ 등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심미성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며 “아름다움은 국내·국제적으로 평화로운 인간의 질서를 건설하는 데 기여하며, 사회 문화와 인간사의 모든 것을 용해하고 융합한다”고 예술의 궁극적인 의미와 역할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술에 대한 밖으로부터의 개입은 용납되지 않으며, 예술은 그 자체로 위치를 분명히 해야한다며 ‘예술의 주체성’을 역설했다.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김영호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발표자들을 비롯해 송호근 서울대 교수, 이기중 전남대 교수, 베르너 사세 한양대 석좌 교수, 아네 요르트 구투 작가가 참여했다.

김우창기자 kimyh@kwangju.co.kr

춤과 미디어아트의 만남 ‘판타스틱!’

광주그린발레단 ‘항해’ 공연…내일 광산문화회관



원시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지는 인류의 모습, 그리고 우주적 시각을 발레와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작품이 무대에 오른다.

광주그린발레단(단장 박경숙 광주여대 교수가 창작 발레 ‘항해(Voyage)’공연한다. 5일 오후 5시30분 광산문화회관.

작품은 프롤로그, 신화, 모던 타임스, 카오스, 탄식, 에필로그 총 6막으로 구성됐다. 원시의 생명력 넘치는 신화의 시대부터 최첨단 기계 문명과 대비되는 피폐해진 지구, 우주로 나아가는 인간의 미래상까지 인류의 흔적이 춤으로 보여진다. 황홀한 우주의 이미지는 미디어 아트 테크놀러지를 활용해 만들어졌다.

작품은 미래의 최첨단 도시에서 남과 여 두 사람이 아름답던 지구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특히 이번 작품은 ‘빛의 정원(2012)’ 등

그린발레단과 오랫동안 협업해온 미디어아티스트 진시영 작가가 직접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군무를 직접 촬영, 초현실적인 인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작가가 만들어낸 변화무쌍한 군무 영상과 실제 무용수들의 군무가 어우러진 부분이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박경숙 단장이 안무물, 조가영씨가 연출을 맡았다. 노르보예프 벨릭메, 조성미, 강병장, 김성우, 김주현, 김두환, 박경애, 정혜윤씨 등이 출연한다.

박단장은 “초자연적이며 강력한 생명력의 원시, 카오스 상태의 현대, 그리고 마침내 멀고 거친 우주의 바다를 항해하듯 인류가 하나가 되어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풀어낸 작품”이라고 말했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960-8255-883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전남초등교원합창단 연주회…오늘 빛고을시민문화관

전남초등교원합창단(단장 김남삼, 목포연동초 교장) 15회 정기연주회가 4일 오후 7시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에서 합창단은 ‘외갓길’, ‘비오는 오솔길’, ‘우주 자전거’ 등 창작동요와 ‘최진사대 셋째딸’, ‘여유 있게 걷게 친구’, ‘총각타령’, ‘그대 있는 곳까지’, ‘청산에 살리라’, ‘산촌’, ‘어메이징 그레이스’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려준다.

또 제5회 전남초등학생합창경연대회에

서 대상을 수상한 화순제일초등학교(교장 신기호) 합창단이 ‘산유화’, ‘경복궁터령’을 들려주며 KWIC여성합창단(지휘 박영철)이 ‘물세 우는 강 언덕’, ‘도라지’, ‘들장미’를 선사한다. 지난 2001년 창단된 전남초등교원합창단은 바쁜 업무 속에서도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시작되는 합창지도 직무연수를 통해 합창 역량을 쌓아오고 있다. 전석 초대.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송순섭 명창 제자들과 ‘적벽가’ 연창회 내일 빛고을국악전수관

올해 팔순을 맞은 운산 송순섭 명창이 제자들과 ‘적벽가’ 연창회를 갖는다. 5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

국가 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인 송 명창은 송만갑, 박봉술 선생으로 이어진 정통 동편제 ‘적벽가’의 맥을 잇고 있다. 동편제 ‘적벽가’는 호령하듯 소리를 질러내는 호방한 소리가 특징으로 유비·관우·장비의 ‘도원결의’를 시작으로 ‘삼고초려’, ‘설움 타령’, ‘조자룡 활쏘는 대목’, ‘불지르는 대목’ 등 드라마틱한 전개가 일품이다.

(사)동편제판소리보존회가 주최한 이번 연창회에서는 김시량씨가 ‘도원이 어대이고’ 대목을 부르며 한규복, 문효심, 박다희, 박정진, 황재중, 류기양, 박명인, 노민아씨가 ‘싸움 타령’, ‘동남풍 비는 대목’, ‘노래 불러 춤도 추고’ 등을 선사한다.

송 명창은 ‘새타령~오림산곡’ 대목을 부른다. 마지막 무대는 김시량·노민아·박다희씨가 함께 부르는 민요다. 장영한씨가 사회를 맡았으며 고수는 정향자·한규복씨다. 전석 무료.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15년 12월호

11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기부의 마음 있어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제 2의 창작, 번역의 세계
한국문학의 세계화, 번역에 달렸다
이름이 곧 브랜드, 스타번역가들

올미년 보내는 따뜻한 마음, 아쉬운 마음

특집
기부의 마음 있어 세상은 아직 따뜻하다
세상 환하게 만드는 곳곳의 나눔꽃들
노블레스 오블리제, 단비같은 기업 메세나

송년기획
지는 해와 함께 한해 마무리, 해넘이 여행

기획1
제 2의 창작, 번역의 세계
한국문학의 세계화, 번역에 달렸다
이름이 곧 브랜드, 스타번역가들

예향 초대석
사랑과 위로의 목소리
팝페라테너 임형주
“언제나 따뜻한 광주는 나에게 감동”

남도의 장인들
천연의 아름다움
삼베 재발견에 앞장서는
삼베장인 이찬식

해의 문화 기행
남안의 카리브해와 마야문명의 정수,
멕시코 칸쿤

문화소식
‘광주의 어머니’ 조아라
자취 생생한 기념관을 가다

문화 화제
서정주 탄생 100주년 기념 미담문학제

정윤수의 스포츠 인사이트
금메달 일고도 율령픽정신 재건 마라톤 반대를 레이 리마

스타 데이트
“단무지 신이 최고 명장면, 차기작은 ‘노산’
‘그녀는 예뻐다’에서 코믹 연기, 최시원

사람이 브랜딩다
어머니의 품 찾아 갔든
바보 산수 의대가
윤보의 집
충북 청주 &
화가 김기창

도시재생, 문화에게 물어봐-
국내외 현장을 가다
영등포 구도심에 채운 문화콘텐츠,
제주 아라리오 뮤지엄로드

전통교수의 남도의 탐 이야기
전남 통일신라박물관,
신라왕조의 불교조형미

한창호의 시네마 필름
존 맥클린 (슬로우 웨스트),
토미리 존스 (더 홀츠맨)

광명연
송우인씨에게 배우는
망말인형 만들기

태극무용사
태극무용사
글로벌 도시 향향 새만금의 꿈
이아기로 생인 시간의 풍경